

[새사회연대 성명]인수위의 국가인권위 개편안 즉각 철회하라

2008년 1월 17일 오후 2:11

민중 참여 민중 시대

새사회연대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 문서번호 : 대외-08-01-03 (2008년 1월 17일)
- 수신 : 언론사(사회부, NGO, 인권담당 기자)
- 제목 : [성명]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절대 안된다.
- 문의 : 새사회연대(02-2235-0062)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 절대 안된다.

인수위 개편안 즉각 철회하라.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하는 등을 포함한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안을 발표했다.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이는 국민의 인권에 대한 위협이자 우리사회의 인권 발전을 퇴행시키려는 기도로 강력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인수위는 국가인권위 위상 개편 이유로 헌법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불가피하다고 하나 핑계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생명은 바로 이 '독립성'에 있다. 법제정 당시 3년여에 걸쳐 수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과 정부의 치밀한 검토, 국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미 합의에 이른 사항이다.

게다가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이사국이고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사회의 각종 인권기구에 임원을 진출시켜 인권 선진국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나라에서 이같은 기능적인 조치는 국제적인 망신이자 비웃음을 자초하는 일이다.

새사회연대는 인권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면 이같은 조치에 음모가 있다고 본다. 인권전담 국가기관의 무력화는 곧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외면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국회는 국가인권위 위상 개편안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 새사회연대는 인권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 맞설 것이며 제 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월 17일

새사회연대

(대표 이창수)